

새만금 잼버리 성범죄 대응 '도마 위'

전북연맹 비마이프렌드 "태국인 남성지도자가 사위실 훔쳐봐"… 여가부 "경미사안"·조직위 "문화적 차이"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아영장에서 발생한 사위실 훔쳐보기 논란과 관련,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성사위장에 태국인 남성지도자가 출입해 피해여성이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고 태국인 남성지도자는 발각 당시 자신의 국적을 속이는 등 수상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님에도 "문화적 차이", "경미한 사안", "성추행 없음" 등의 결론으로 사건을 덮는데 급급하다는 의혹이다.

전북연맹 비마이프렌드 관계자는 6일 잼버리 프레젠테이션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전북연맹 소속 여성 지도자가 사위를 하는 것을 외국인 남성이 훔쳐봐 발각했다"며 "이와 관련, 조직위 측에 조치를 요청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비마이프렌드는 사건을 조직위원회에 신고했지만 조직위는 적발된 외국인 남성에 대해 경고 조치하는 것에 그쳤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체에서 잼버리에 입소한 인원은 청소년 72명을 비롯해 80명이다. 외국인 남성은 적발된 뒤 자신의 국적이 아닌 국적을 대며 변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마이프렌드 관계자는 "대원들이 사건 이후 사위실과 화장실 이용 등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열악한 아영장 환경 등에 대해서 대원들과 의견을 나눴으며 결국 퇴영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은 "경미한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이번 사건에 대해 답변했으며, 최창행 잼버리 조직위



6일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프레젠테이션에서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비마이프렌드 관계자가 긴급 기자회견 중 잼버리 조직위 관계자에게 제지를 받고 있다.

사무총장은 "세이프프롭팀이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다"면서 "특히 문화적인 부분을 조사했는데 세이프프롭팀이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한 일로 보고 가벼운 경고 조치를 취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이콥 머레이 세계스카우트연맹 이 벤트국장은 "보고와 다르게 세이프프롭팀(Safe from Harm)팀이 집요하게 수사한 결과로서 해당피해자 진술에 의거하면 어떠한 성추행 사실도 없었

다는 관련 결과를 도출했다"고 답했다.

수사에 나선 전북경찰도 '성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을 내놨다.

김효진 전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현재까지 관련자들의 진술 사위실 내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성범죄 목적의 침입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면서 "건조물 침입이라든지 다른 혐의가 있는지 법률적 검토를 받고

있다고 했다.

이런 식의 해명이 이어지자 전북연맹 비마이프렌드는 분통을 터뜨렸다.

전북연맹 비마이프렌드 관계자는 "애들이 불안해하고 관련 피해자는 알아 주셨다고 항의하다가 기자회견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한편, 전북연맹 비마이프렌드 측은 "대원들이 이 사건과 관련해 무시무하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기 때문에 퇴영을 결정했다"고 했다. /뉴스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기 퇴영길에 오른 영국 스카우트 대원들이 5일 전북 부안군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아영장 정류장에서 버스에 짐을 싣고 있다.

가디언 "英스카우트 철수 韓정부에 큰 타격 줄 것"

"韓정부, 부정적 보도 제한 전력 기울여야"

극심한 폭염 속에 전북 새만금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참가 중인 영국 스카우트가 지난 4일 행사장에서 철수한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일간 가디언은 "영국의 국제 행사 불참은 한국 당국에 큰 타격과 당혹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영국 스카우트연맹은 40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35도의 기온 속에서 호텔로 이동하고 있다고 BBC가 지난 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식수와 약품을 현장에 보내고 있다고 BBC가 전했다. 영국 스카우트가 머물 숙소는 서울에 위치한 호텔이라고 가디언이 보도했다.

영국 스카우트연맹은 성명을 통해 "행사장 전반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이들 동안 호텔로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가 잼버리 현장에 있는 동안 영국 자원봉사자들은 주최자들과 함께 우리 청소년 회원들과 성인 자원봉사자들이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음식과 물, 유념히 더운 날씨로부터의 피난처, 그리고 적합한 화장실과 세탁 시설을 갖추 수 있도록 매우 열심히 일했다"고 덧붙였다.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인원을 파견한 영국 스카우트연맹은 계획대로 13일 귀국할 예정이다. 영국 참가자 대부분은 14~18세 청소년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최근 며칠 동안 최소 600여명이 열사병과 관련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중에는 영국 참가자들이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BBC가 보도했다.

가디언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최

근 며칠 동안 열사병환과 관련된 치료가 필요했다고 전하면서 3일 하루에만 138명의 사람들이 열사병환과 관련해 진료소와 병원을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700명 이상이 진료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번 참가국 중 가장 많은 스카우트를 파견한 영국의 캠프 철수는 적잖은 파장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가디언은 "영국의 국제 행사 불참은 최근 며칠 동안 발생한 여파와 부정적 보도를 제한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온 한국 당국에 큰 타격과 당혹감을 안겨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한국은 최근 수십 년간 대규모 국제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선진국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고자 열망해왔다"며 "한국 정부는 세계 엑스포, 월드컵, 그리고 올림픽을 포함해 세계 3대행사를 개최하는 7번째 나라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최국 선정이 몇 달밖에 남지 않은 세계 엑스포 2030은 국가적 우선 순위"라고 지적했다.

가디언은 또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조직위원회에 대해 "병상 부족, 이전의 폭우로 인한 식수 부족, 썩은 음식, 모기와 파리 때, 그리고 열악한 위생 상태에 대한 수많은 실명 이후 주최측은 비난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조직위는 3일 언론 브리핑에서 무대 위 케이팝 공연을 보는 것에 대한 과도한 흥분이 더위 스트레스를 유발했다고 말했지만, 일부 학부모들은 현장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고, 영국 의무부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덧붙였다. /뉴스

청소년을 위한 여름방학 선물

CINEMA FANTASY

2023. 8. 19(토) 3:00pm

문화공간 이룸 ART SPACE

주최 | 주관 | 전주지역문화재단
후원 | 후원 | 전주지역문화재단
타겟 | 전석 1만원 |
예매 | (내)에 예약 "청소년을 위한 판다시 사재" 장제 03-0
문의 | 063)223-5323
카카오 채널 "문화공간이룸"

본 청소년을 위한 Cinema Fantasy는 (재)전북도문화재단 2023년 지역문화체육관광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입니다.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4일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장 내 전주시홍보관을 찾아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전주시의회, 잼버리 현장

전주시홍보관 운영상황 점검

전주시의회 의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세계스카우트잼버리 행사가 열리고 있는 새만금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이기동 의장과 의원 10여 명은 잼버리 행사장 내에 마련한 한복, 공예, 국악 등 전주시홍보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의원들은 일일 방문객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하며 불편 사항이나 부족한 점이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기동 의장은 "폭염 속에서도 전주시홍보관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관계자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이라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세계 각국에 전주시가 더욱 많이 알려지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폭염 등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생긴 참여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홍보관을 운영하는 관계자들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면서 더위로 어려움에 처한 참여자가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옥기 기자

정치권, 잼버리 자료요구 쇄도 전북도 대상 '융단폭격' 예고

여야 의원들, 잼버리 관련 자료 전북도에 10여건 요청

향후 더 늘어날 듯… 국감·대정부 질의 등 활용 용도

부실운영과 졸속추진이란 비판을 받고 있는 전북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소재 추구를 위한 밀착압에 들어갔다. 오는 10월 국정감사에서 전북도에 대한 정치권의 융단폭격이 예상된다.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잼버리 행사와 관련해 지난 나흘(8월 2~5일) 간 들어온 국회의원 요구지표는 10여 건이다.

국회의원 조은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잼버리 예산'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경희 의원은 최근 5년간 세계잼버리 관련 사업실명서, 국회의원 이 달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

원은 전반적인 대회 관련 자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폭염 경보 후 잼버리 관련 대책 마련 여부' 등을 도에 요청했다.

국회의원 김용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임종성 의원은 전북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새만금 잼버리가 진행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여·야의 잼버리 관련 자료제출 요구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국정감사와 대정부 질의 등에 활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국정조사 등이 추진될 경우 전북도는 책임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

/뉴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